춤추는 것 좋지만 공부도 함께 하면 꿈 가까워지지 않겠니

장래 희망은 '댄서' 걱정 한다면 제 꿈 응원해 주세요

서양화가 류재웅씨·고3 아들 지웅군 父子

고교 입학후 끊긴 대화 진학 논의하면서 생각의 격차 줄여

"댄스학원 다닌 것 알고 충격 받았지만 더 도와주고 싶어"

"사진도 열심히 찍고 싶지만 아직은 춤에 집중하고 싶어요"

한국의 부자(父子)만큼 어색한 사이가 있을까.

요즘에는 부자갈등이 주변에서 흔히 보고 듣는 일이 돼버렸다. 문제는 둘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지만 오가는 대화는 없다. 힘들게 말을 꺼내도 "그래", "네", "알았어요" 정도로 그친다. 어떤 가족은 부자 사이에 끼어 있는 어머니가 '통역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가깝지만 가장 먼 사이가 돼 버렸다.

3일 늦은 밤 만난 서양화가 류재웅(51)씨와 그의 아들 지웅(18)이도 한때는 '진로'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었다. 지웅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부쩍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들과 대학문제를 논의하면서 점차 생각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류씨는 "딸이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들도 화가나 사진 작가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아들이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7개월 전 류씨는 아들이 댄스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춤'만큼은 탐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신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스트리트 댄스'여서 더욱 그랬다. 지웅이는 류씨가 그 사실을 알기 4~5개월 전부터 댄스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류씨는 "무조건 반대하고 싶지는 않았고, 아들이 조금더 편한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며 "저도 어렵게 미술을 했고, 또 어렵게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웅이는 춤이 그저 좋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춤에 흠뻑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자신도 단순하게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땀을 흘리면 그게 그냥 좋았다. 생각했던 꿈도 따로 있었다.

지웅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사진작가'를 꿈꿨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사진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찾기도 했다. 그렇게 1년 넘게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사진에 흠뻑 빠져들었다. 손에는 아버지가 사용했던 'FM2' 카메라와 "열심히 해봐라"며 아버지가 새롭게 사준 디지털 카메라가 들려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댄서라는 꿈이 마음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사진이 싫었던 것은 아니었다. 춤추는 자신의 모습에서 소질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가 "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관심을 가져주기도 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춤'에 대한 관심이었다. 현재는 동구에 있는 조이댄스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1년 넘게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다.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류씨도 최근에는 점차 생각이 바뀌었다. 하지만 여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춤에만 빠져있는 아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웅이와 같은 모습이네요. 늦은 시간까지 미술 공부를 하고 와서는 아버지가 '왜 이리 늦었느냐'고 물으시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고 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광주일보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타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허락해주셨어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업도 어느 정도는 했으면 해요."(류재웅)

류씨는 지웅이의 생각을 받아들여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 아들을 실용 음악과에 진학시키기 위해 여러곳의 대학들을 알아보고 있다. 아들이 대학에 가서도 춤과 함께 공부를 조금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웅이는 유명한 사람보다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가수를 꿈꾸는 것도 아니다. 좋아하는 춤을 추면서 나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댄스 강사도 하고 싶다. 최근에는 주말이면 서울 등에서 열리는 대회나 행사에 참석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기도 하다.

"이 길이 꼭 힘들거나 실패하기 쉬운 길이라는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제가 즐겁고, 또 누군가는 이런 저를 알아주기도 합니다."(지웅)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부자에게는 좋은 추억도 많았다.

설경 그림을 많이 그렸던 류씨는 강원도로 스케치를 많이 나갔다. 종종 지웅이가 함께 하기도 했다. 눈길을 곧잘 오르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 아들과 함께 차를 몰고 눈길을 달리던 중 차가 한바퀴 도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하마터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사고였다. 두 부자는 당시 서로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지웅이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곧잘 했다. 류씨는 지웅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 항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다. 중학교 때는 손을 잡고 학교를 찾아가 테스트를 받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자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했다.

"언젠가 학교에 다녀온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웅이가 담임 선생님께 '제 후원자는 아버지에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견스러웠고,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죠.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도와는 주고 싶어요. 늦은 시간까지 땀흘리며 연습하고 돌아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깐요."(류재웅)

류씨는 지웅이가 조금만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 마음에 있는 말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웅이는 "아직 사진 작가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며 "나중에는 춤도 추고, 사진도 열심히 찍고 싶지만 아직은 춤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62년 전통의 광주·전남 대표신문 光州日報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성공비지니스를 실현하는 리더들의 고품격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회장 고 춘 석(해양도시가스 사장)외 회원 일동